

새만금 투자유치 '활력'

기업들 산단 장기임대용지 입주 문의 잇따라... 올해에만 1월 중 2건 투자협약

새만금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 효과와 함께 투자유치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2018년~2019년 국가예산이 반영되어 장기임대용지 20만평(66만㎡) 확보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오는 4월부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할 수 있게 되어 투자유치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유치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투자협약(MOU) 7건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에만 1월중 벌써 2건의 신규 투자협약(MOU)을 체결, 지난해

협약 기업중 1건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입주절차를 마치고 2월중 공장 착공이 계획되어 있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지난해와 올해 조정한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분양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정부 추경 예산에도 장기임대용지 조성 예산(280억원, 10.3만평)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정치권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만금의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기업 가치가 10억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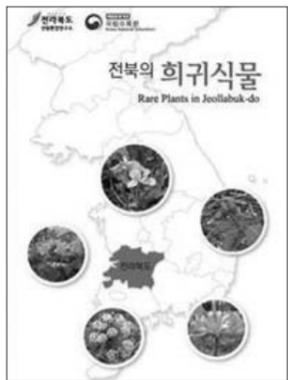
도내 희귀식물 100종, 책 속에

전북산림환경연구소, 도감 발간

전북산림환경연구소(소장 양정기)는 전북 지역에 자생하는 노랑쑈덕, 위도상사화, 청사조 등 희귀식물 100종을 수록한 '전북의 희귀식물 도감'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무분별한 개발과 채취 등으로 자생식물의 서식지 감소와 훼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0년부터 9년에 걸쳐 전북지역에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을 대상으로 자생지 분포조사와 수집, 개체군 모니터링과 증식사업을 연차적으로 수행했다.



사신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으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했다.

산림환경연구소 측은 "이번에 발간한 도감은 도내 산림관련 부서 및 학교, 전국 수목원·식물원, 산림연구기관 등에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면서 "희귀식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대량증식법 개발, 서식지 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 '스트립마 논란' 최고일 징계안 제출

"품위 유지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국 출장 중 스트립마 방문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고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백혜련 의원과 박경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원내대표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서명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백 의원은 제출 이후 최재진에게 "지금 드러난 사실로 보면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에 확실하게 해당하는 사례"라며 "최 의원이 해명이라고 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웃을 다 벗은 무희는 없었다'는 발언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 국회는 반드시 징계의결로 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백 의원은 "어떻게 정치탄압이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팩트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방침이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 재정 정보 유출 관련 심재철 의원, 용산참사 유족 목욕 관련 김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돼 있다. /뉴시스

"혁신적 포용국가 추구, 주동력은 혁신성장"

문 대통령,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서

"혁신창업 활발해져야... 중견→유니콘→대기업 성장 필요 창업 생태계 마련돼야... 정부 정책적 성과 나타나고 있어"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하면서 성장의 주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설 연휴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혁신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특히 혁신창업이 발달해야 하고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의 생태계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요즘 시간 내는 대로 다양한 경제주체를 만나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은 1세대 벤처기업인과 1세대 혁신창업 기업을 대기업 반열로 만든 분들과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혁신창업해서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인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어 작년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벤처 투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수출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액, 연간 수출액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인과 만남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 일정은 새해부터 이어온 경제 행보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을 비롯한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지난 1월 CES(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혁신상을 수상한 것을 거론하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벤처기업 6개도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며 "유니콘 기업도 올해 1월

기점으로 6개인데 5개 정도는 유니콘 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잠재적 유니콘 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을 더 성장시켜보고 새롭게 창업하는 창업가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점들을 생생하게 들려준다면 앞으로 우리가 혁신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이끄는 기업인 7명 참석했다.

1세대 벤처기업으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이 참석했다. 유니콘 기업에선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권오섭 L&P 코스메틱 대표, 이승건 비비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익산 석탄동 만경강 야생조류 AI 검사결과 '음성'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익산 석탄동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생체시료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AI 바이러스 음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범죄신고 112 · 화재신고 119

고용부, 올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설치

고용노동부가 올해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추가로 10개소 설치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해 강서구, 계룡시, 시흥시 3개 지역에 설치했다. 올해는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2022년까지 5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시작했으며, 공모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월에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